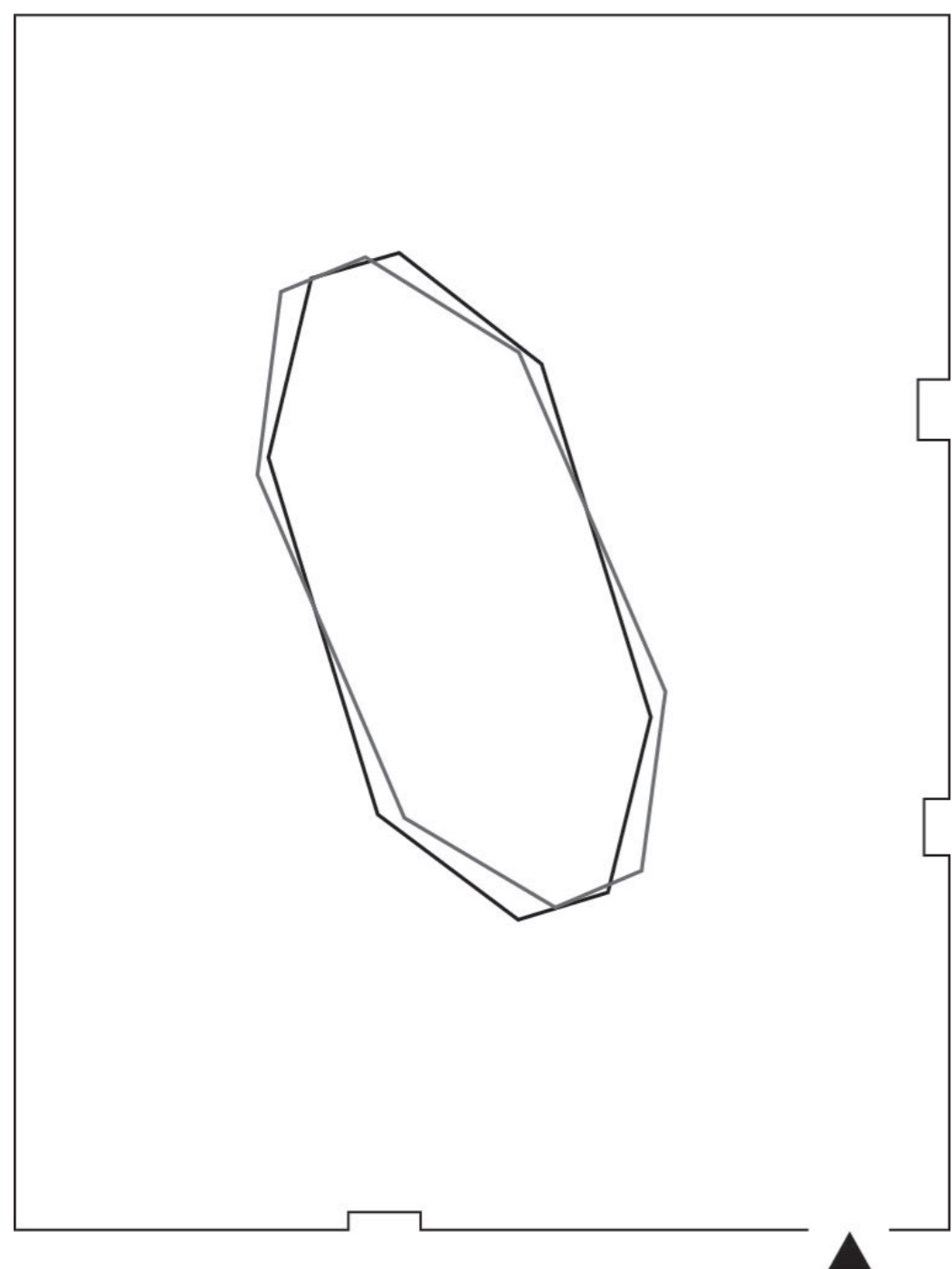


2019 아트스페이스 오 작가공모

playunderground

2019. 9. 21. - 28.

홍수현 개인전



unzutreffend

MDF, 각목, LED, 경첩
450 x 193 x 200 cm
2019

회화 속 환영의 공간을 작업의 출발점으로 한 홍수현은 환영이 시각화되는 공간인 캔버스 표면과 그 공간이 유지되기 위한 구조인 캔버스 프레임에 주목한다. 작가는 캔버스 천과 프레임을 분리, 해체 그리고 재조합 함으로써 회화적 공간을 무너뜨리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환상이 사라진 실체적 공간을 드러내는 작업을 해왔다.

이후 그 무대를 옮겨 외부공간 구조의 물리적 특성을 관찰, 이해하고 이를 이용한 작업을 진행시켰고, 그 과정에서 공간과 빛이 가지는 상관관계에 주목하여 빛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설치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.

이번 playunderground 전에서 작가는 자연광이 완전히 차단된 지하 전시장의 공간적 특성을 바탕으로한 설치를 선보인다.

어두운 전시장 내부의 공간 한 가운데 커다란 구조물이 위치해있고, 이 구조물은 전시 공간 속에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있지만 관람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닫힌 구조를 가지고 있다. 그리고 그 안에서 부터 새어나오는 빛은 구조물 속 공간을 더욱 강조하면서 내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한다.

전시 공간 속에 또다른 공간을 만들어내지만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설치는 이미 전시장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관람자를 구조물의 공간 밖으로 밀어내고 그 주위를 맴돌게 함으로써 “안과 밖”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한다.